

은 의롭고 공의를 심판한다고 믿어왔으나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버림받아온 것이다. 예수의 처지가 바로 그렇다. 그런데 그런 극한상황에 놓인 예수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한 것이다. 버리셨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나의 하느님”이라고 한다. 어째서 그래도 “나의 하느님”인가? 여기, 죽어도 죽지 않으며 버려도 버림받지 않는 강인한 삶이 있다. 버림을 받아도 “나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하느님은 그를 배반하는 듯하나 그는 끝끝내 하느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죽기까지! 여기서 역사는 민중을 배신하기를 거듭하나 그들은 역사를 배반하지 않는 모습을 본다. 그래서 바로 저들은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6. 그는 누구인가?

이상에서 예수의 행태의 한 측면을 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인 질문은 남는다. 그는 누구인가? 그것은, 그러한 생애가 그 다음에 그 같은 엄청난 역사적 사건으로 점화될 것이라는 필연적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의 공생애는 일반적으로 3년이라는 게 통념이나 그것은 요한 복음에 의한 것이고, 공관서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있는 해방절이 한 번밖에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 1년 동안 무명의 가정에서 배우지 못한 약 30세의 청년이 변두리 지역인 갈릴래아 지방에서 그 당시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자들 중의 하나로 몇몇 무식한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민중과 더불어 살

며 그들에게 환영받고 그들의 친구로 희망을 주고 병도 고쳐주는 행각에서 자주 유다 민족의 지도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의분에 찬 청년답게 성전을 숙청했으나, 유다인들의 상류층, 나아가서는 민중에게도 지지받지 못하고 결국 야합한 힘에 의해서 체포되어 로마의 죄수로 초라하게 죽었다. 그것으로 한 사람의 생이 끝난 것이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보다 더 용감하게 민중을 규합하고 민중의 지지를 받으며 메시아의 도래와 하느님의 직접 통치를 설교하면서 로마와 그의 앞잡이들과 싸우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모두 역사에서 사라지고 어째서 유독 나자렛 예수 운동만이 세계를 뒤집어놓았을까?

흔히 빌라도가 예수를 군중 앞에 끌고 나와 “이 사람을 보라!”고 한 말을 인용하는데, 그 사람은 참 초라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가 필립보 가이사리아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을 던진 일이 있는데,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신하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 그때 예수는 가부를 대답하지 않고 그저 수난 예고를 했다. 그것은 너무 예상 밖의 발언이기에 베드로는 그 길을 만류하다가 심한 책망을 듣는다(마르 8, 27). 이 장면은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이 예수의 실상과 달랐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으로 그가 누구냐에 대답한 것으로 알면 베드로와 같이 사탄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교훈이다. 그러므로 그런 칭호 속에서 그를 추상화하지 말고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옳다.

분명히 예수를 저버린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의 사람들이 갑자기 ‘부활한 사람들’처럼 변모하여 일어났다. 저들은 ‘부활한 예수’를 경험한 것이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는 우리의 언어영역에 들어오지 않

으며, 따라서 역사적 서술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무엇이 저들에게 부활의 경험을 하게 했으며, 위에 간간이 언급한 예수의 생을 새로운 눈으로 해석하게 했는가? 특히 십자가사건의 의미에 눈을 뜬 것이 그들의 부활경험의 내용인데, 그것은 그저 하나의 특수한 종교적 경험으로 묻어둘 것이 아니라, 역사의 예수에게서 그럴 수 있는 원인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저들을 그렇게 실망시킨 예수! 그렇게 초라한 최후를 마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확신과 함께 저들 자신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증언은 저들의 주관적인 것일 수 있기에 회의를 안고 계속 물을 수 있으나, 저들이 살아나서 천하에 그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적은 역사적 사실이기에 그 까닭을 묻는 것은 역사의 예수의 물음을 계속하는 것이 된다.

예수가 대담하게 성전 숙청을 했을 때 그의 적대자들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다(마르 1, 27). 이에 대해 예수는 대답을 거부했다. 권위(eksusia)란 그럴 수 있는 공인된 자리에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느님에게서 받은 권한임을 입증하는 기적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그 권위를 제시하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가 권위 있는 자처럼 행하니까 사람들 중에는 그는 배우지 못했고 우리와 함께 사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자가 아니냐고 그를 배척했다(마르 6, 1 이하). 그러나 그럴 적마다 “나는이다”라고 분명히 자기의 권위(신분)를 댈 일이 없었다. 사실상 사회 신분상으로 그는 수공업자 목수에 불과했다(마르 6, 3). 마태오나 루카 등에는 그가 다윗왕의 혈통이라는 것을 내세우려고 하고, 마르코에도 예수에게 그런 전제에서 말을 거는 자들이 등장하나, 예수가 스스로 다윗의 후예라고 한 데는 없고 오히려 이사야는 다윗의 후예라는 교리

에 대한 소견을 묻는 데 대해서 “다윗이 그(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마르 13, 37)고 일격한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일반인처럼 가정을 이룬 흔적이 없으며, 아무 소유도 없고 집도 없는 떠돌이 설교자였을 뿐이고, 당시엔 그런 자들이 많아서 유다 사회에서 귀찮은 존재로 경원당한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마태 8, 20)고 한 고백은 그의 삶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는 갈릴래아에서 한동안 민중의 환영을 받았으나, 결국에는 그중에서 선택된 12명의 하나에게 배신당했으니 스승으로도 성공한 인물이 못된다. 그는 그렇게 아무 지지도 못 받은 채 맥없이 일부의 기대를 외면한 채 처형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전혀 다른 면이 있었다. 그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되 이른바 인륜적(人倫的) 의무마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할 정도로 강경했다(루가 9, 59~60). 누구든지 그를 따르려면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그리고 자매를 다 버리라고 했다(루가 14, 26).

그는 자신뿐 아니라 그의 말이 인간의 운명도 결정한다고 확신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지 않는 것이 장차 심판과 직결된다고 했고(루가 12, 8~9), 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존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했다. 그는 당시 유다 사회의 법이되 신의 권위로 뒷받침된 모세의 법에 대해서도 그것이 사랑하는 자유와 충돌될 때에는 주저없이 폐기하고 침범했다.

그는 그 사회에서 범죄자 내지 우범자들로 규정된 무리들과 휩싸여 살 뿐 아니라 바로 저들을 위해서 왔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저들을 박해하는 자들과 정면 대결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

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마르 2, 15~17)는 그의 선언은 당시 체제에 대한 구체적 도전인 것이다.

또한 그는 현재의 심판권을 위임이라도 받은 듯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체제에서 용인되지 않는 기준으로 선언한다. 최후심판의 기준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떠돌이가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병 들었을 때 돌보고, 감옥에 갇을 때 찾아준 것을 내세운다. 그리고 바리사이파와 민족의 반역자로 규정된 세리의 기도를 보고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되었다고 선언한 것(루가 18, 14) 등이 그런 특권자의 선언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때를 악마의 시대로 보고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함과 동시에 사탄의 시대를 종결짓기 위한 전선 사령관처럼 싸운다는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위에서 이미 인용한 “내가 하느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루가 11, 20)는 말씀은 그의 위와 같은 소명감을 뚜렷이 나타낸 것으로 크게 받아들일 말씀이다.

이 같은 그가 죽음을 예고하면서,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선언을 한 것이다. 당시 많은 메시아 운동가들도 장엄한 죽음으로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무기를 들고 싸우다 죽었다. 그런데 예수는 죽이기보다 스스로 악한 것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의 수난의 모습은 당시 민중의 수난의 극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어느 누구의 삶과도 비교될 수 없는 고유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종합적 개관으로부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의 제자들이 그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이해와 더불어 절망에서 부활할 거점이 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다.